

2. 통화정책

〈글로벌동향〉

- 2016년 4/4분기중 유럽 및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반면 미국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차별화
- 2017년 1/4분기중 중국은 금리인상을 단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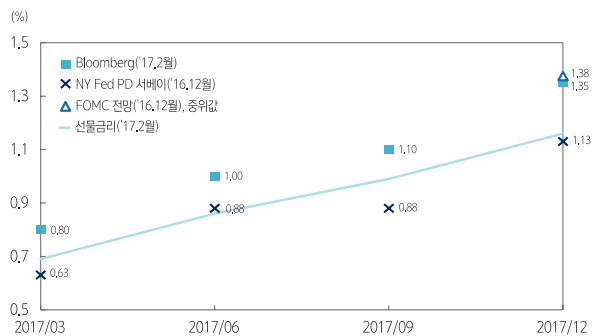
〈국내동향〉

-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이후 기준금리를 1.25%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,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2017년중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

가. 글로벌동향

- 미 연준은 2016년 12월 14일 FOMC 정례회의에서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 만에 정책금리를 기존 0.25~0.50%에서 0.50~0.75%로 25bp 인상
 - 2017년 예상 금리인상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 존재
 - FOMC위원 2017년 정책금리 전망: 1.125%(2016년 9월)→ 1.375%(12월)

미 연준 금리인상 경로에 대한 연준 및 시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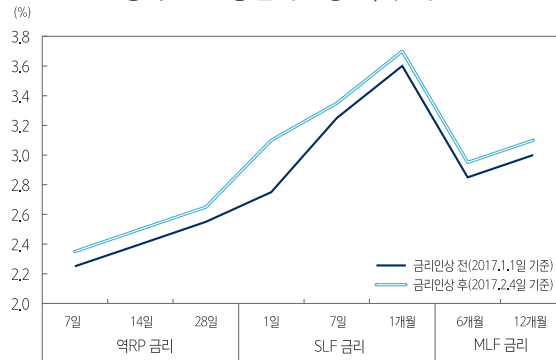


주 : Bloomberg 서베이는 금리 상단 기준

자료: Bloomberg, FRB, NY Fed

- 유럽중앙은행은 2016년 12월 8일 정례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자산매입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2017년 12월까지 9개월 연장
 - 자산매입프로그램을 2017년 3월까지의 현행대로 월 800억유로 규모를 유지하되 추가 연장 기간인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월 600억유로로 규모를 축소해 시행할 예정
 - 다만 경제상황 악화로 물가가 예측경로를 벗어나는 경우 등 필요시 자산매입프로그램의 규모 및 기간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
 - 또한 매입대상채권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매입 조건을 일부 완화
 - 기존 금리하한(수신금리 -0.40%)을 하회하는 채권 및 1년 만기 채권의 매입을 허용
- 일본은행은 2016년 11월 및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단기 금리 수준 및 자산매입 규모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
 - 단기 정책금리는 -0.1%, 10년물 국채금리는 0% 수준으로 유지하며 연간 80조엔 규모의 자산매입도 지속
- 중국인민은행은 2017년 1월 중기유동성지원창구(Medium-term Lending Facility: MLF)의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2월 단기유동성지원창구(Standing Lending Facility: SLF) 및 역환매조건부채권(역RP) 금리를 상향 조정
 - 역 RP 금리(만기 7~28일)는 공개시장 운영, SLF(만기 최대 3개월) 및 MLF(만기 3~12개월)는 재할인을 정책에 해당
 - 1월 24일 MLF를 통해 중기자금 2,455억위안을 공급하는 한편 MLF 6개월물(2.85%→2.95%)과 1년물(3.0%→3.1%) 금리를 각 10bp씩 인상
 - 2월 3일 SLF 금리를 1일물은 35bp(2.75%→3.10%), 7일물(3.25%→3.35%) 및 1개월물(3.6%→3.7%)을 각각 10bp씩 인상하였으며 역 RP 금리도 7일물(2.25%→2.35%), 14일물(2.40%→2.50%), 28일물(2.55%→2.65%)을 각각 10bp씩 인상
 - MLF 금리인상은 2014년 9월 해당 프로그램 도입 이후 처음이며, 7일물 및 14일물 역 RP 금리 또한 201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인상
 -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의 이번 금리인상 단행이 급격한 신용대출 증가세 억제 및 자본유출 압력 완화 등을 위한 시도인 것으로 해석

중국인민은행 금리 인상 전, 후 비교



자료: Bloomberg

나. 국내동향

□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이후 기준금리를 1.25% 수준으로 동결

□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인하 요인과 동결 또는 인상 요인이 혼재해 있어 전망기관들의 예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2017년중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

— 2017년중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은 전체 37개 전망기관중 12개 기관(1개 기관은 2회 인하 예상)이며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관은 21개 기관임

- 최근 민간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한 데다 미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내 전망기관들을 중심으로 동결을 예상하는 기관이 우세한 상황
- 한편, 4개 기관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등을 감안하여 4/4분기중 금리인상을 예상

기준금리 수준별 예상기관 수(2017년 2월 기준)

기준금리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0.75				1
1.00	2	7	11	11
1.25	35	30	26	21
1.50				4
전체	37	37	37	37

자료: Bloomberg, 인포맥스

연구위원 강현주 (02-3771-0850, hjkang326@kcmi.re.kr)

연구원 장효미 (02-3771-0872, janghm@kcmi.re.kr)